

5 월의 사양관리

♣ 축산과학원



일반 사양관리

지난 4월 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방역당국과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소를 기르는 양축가에서도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의 긴장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겨우내 준비해 먹었던 볏짚이나 건초가 부족한 농가에서는 호맥청예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호맥 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청예사료를 급여할 때는 7~10일의 여유를 두고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주어야 한다. 젖소에게 수분이 많은 청예 급여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에너지 섭취가 부족될 우려가 있다. 개체별 산유량을 점검하고 폭등하고 있는 사료 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우와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젖소 개체관리기록부를 통한 개량, 번식, 영양, 질병상태 등을 점검하여 가축의 개체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하고 또한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의 환기, 분뇨처리, 착유시설, 운동장 시설 등을 종합 점검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양관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젖소에게 수질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물 급여는 우유생산량이나 성

장을 제한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물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조직에 필요한 것을 영양소를 운반하

고 공급하며, 착유우에 의해 분비되는 우유의 약 87%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급수원의 물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 검사 및 수리를 해 준다. 만약 산유량이나 번식성적이 저하되고 우군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소에게 공급되는 물은 매년 대장균, pH, 질산염, 아질산염, 총 세균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수질 문제가 의심스럽다면,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분만과 발정이 많은 계절이므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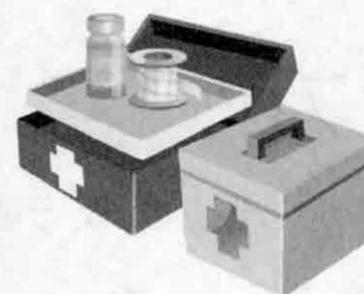
만 예정우와 발정우의 관찰을 오전 오후 착유 전에 20~30분 정도 실시하여 기록함으로써 분만을 및 번식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를 그대로 급여하기 보다는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하여 산유량 증대를 위한 사양관리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구충 및 발굽삭제를 실시한다.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지난 여름을 지나며 수정된 임신우들이 분만을 할 시기이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환경과 어미 소로부터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균보다 먼저 양질의 초유가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여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어야 한다. 젖소가 분만 후 24시간 내에 분비하는 우유를 초유(初乳, colostrum)라고 하며, 초유에는 비타민 A, D, E 및 단백질 등 영양물질이 일반 우유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아지 출생 후 빨리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초유 중의 면역글로브린(immuno-globulin)의 함량은 초산우보다 경산우가 많으므로 경산우의 잉여초유는 받아 냉동실에 얼려 보관해 두면 초유가 부족하거나 분만 후 어미 소가 도태되어 초유를 이용

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분만초기에는 송아지 설사가 없다가 송아지 방에 몇 마리 거치면서 많은 설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송아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 및 건조를 철저히 한 후 새로운 송아지를 입식시키도록 한다. 송아지 및 후보축과 경산우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접종하도록 한다. 5월말까지 구제역 발병 위험시기이므로 가축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축사 출입구에 방역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사료운반차나 집유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지난해 심어 놓은 호맥 및 연맥을 이용하여려는 농가에서는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사일레지를 담글 것인지 건초를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후작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면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 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라쏘 3,000ml+씨마진 1,000ml를 물 1,200ℓ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옥수수 추비시에는 옥수수 잎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포기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 포기마다 주되 잎이나 성장점에 비료가 닿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멸강나방 방제를 위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㉞

〈송아지 및 후보 소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

- ☞ 출생시
 -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송아지 설사증 백신접종
 - 클로스트리디움 균에 의한 장독혈증 독소이드 백신접종
 - 대장균 설사증 백신접종
- ☞ 출생 2~3주
 - 헤모필러스 솜너스 1차 백신접종
 - 파스튜렐라 백신접종
- ☞ 생후 2~6개월
 - IBR, BVD, PI3, BRSV 혼합백신 1차(2~3개월령) 및 2차(3~4개월령) 접종
 - 헤모필러스 솜너스 2차 백신접종
- ☞ 생후 8~14개월
 - IBR, BVD, PI3, BRSV 혼합백신 보강접종, 탄저·기증저 백신 접종
 - 소유행열, 아까바네병 백신접종

〈경산우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

- ☞ 초유의 방어항체 수준을 높여 송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임우 또는 분만 전 경산우에 대한 백신프로그램
 - 로타-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장독혈증, BVD 백신
- ☞ 모기 매개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 유행열, 아까바네병 등 모기 매개 질병을 모기가 발생하기 전 4~5월에 접종

※ 출처 : 표준영농교본 낙농편(농촌진흥청, 2003년판 p274)